

부동산교부세 교육 투자 싸고 광주시교육청-구청 ‘불협화음’

교육청 “재정지원 해야” 구청 “단체장 권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내 구청이 부동산 교부세 중 교육부문 투자액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중 20%를 지역교육 부문에 사용도록 규정된 것을 두고, 교육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법적 분담금”이라고 하는 반면, 구청측은 “목적만 명시돼 있을 뿐 용처는 단체장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정 지방교부세법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올해부터 부동산 교부세의 20%를 지역교육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전체 20% 중 10%는 영어체험학습센터, 4%는 방과후 교육 및 보육, 6%는 지역교육 현안 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5개 구청이 분담해야 할 부동산 교부세 중 교육부

문교부액은 94억3천600만원으로, 영어체험센터에 51억5천700만원, 방과후교육 및 보육에 20억6천200만원, 현안사업에 22억1천600만원 등이 배정돼 있다.

각 구청별 분담액은 ▲북구청이 25억5천500만원 ▲광산구청 21억6천200만원 ▲서구청 18억1천800만원 ▲남구청 14억7천400만원 ▲동구청 14억2천5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 각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교부액은 ▲서구 3억100만원 ▲동구 2억4천400만원 ▲광산구 2억3천700만원 ▲북구 2억1천900만원 ▲남구 1억6천200만원 등 11억6천400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교부 예정액의 12.3% 수준이다.

구청 측은 “교육 부문에 투자하라는 것이지 꼭 시교육청에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다”며 “구청이 개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파악 중인 것보다 많은 액수가 교육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이 이처럼 부동산 교부세 중 20%를 시교육청에 쉽게 내놓지 않는 것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고유 사업에 교육 부문을 포함시킬 수 있는 데다 인건비 등 지자체별 시급한 재정 요인으로 있을 경우를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일 광주시 내 5개 구청장을 초청, 부동산 교부세 교육부문 사업에 대한 각 구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교부액 운영 및 증장기 계획을 세워 교부액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대 4천350명 모집 … 법학과 폐지

조대 4천840명 선발 … 맞춤형 교육

2009학년도 입학 정원 확정

전남대와 조선대가 2009학년도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했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2009학년도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보다 448명 줄어든 4천350명이다. 전남대의 정원 감축은 여수대와의 통합 이후 20% 이상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의무 때문이다.

정원 조정과 함께 전남대는 ‘4계열 19학부 45학과 49전공’이던 학사조직을 내년부터 ‘1계열 27학부 58학과 83전공’으로 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에 따라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법대가 없어지고, 법대에 속했던 행정학과는 사회과학대로 소속을 옮겼다. 약학부는 학제개편에 따른 정부 조치로 2010년까지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했다.

또 전남대는 본부직할 학부로 모집 한 뒤 2학년 때 회망학과로 배정하는 일반학부 정원을 기존 55명에서 215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 밖에 건설지구환경공학부 등 5개 학부 및 계열이 14개 학과로 모집 단위를 조정했다. ▲건설지구환경공학부는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에

너자원공학과로 ▲산업 및 전기공학계열은 산업공학과, 전기공학과로 ▲생활과학계열은 생활환경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사회교육학부는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로 ▲과학교육학부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과 유과로 세분화됐으며, ▲불어불문학과는 모집단위 내에 불어교수법 전공을 신설했다.

조선대의 2009학년도 입학정원은 4천840명으로, 기초의과대학, 글로벌 법학과, 자유전공학부 등이 신설된다.

정원 100명의 기초의과대학부는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6년제 약학대학 진학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글로벌법학과는 기존 법학과 200명 중 30명을 떼어낸 것으로 로스쿨 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로스쿨 성격을 띠고 있다.

정원 50명의 자연전공학부는 1년 간 전공 없이 적성과 성격에 맞는 공부를 한 뒤,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계열 구분이 없으며 2학년 때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 진입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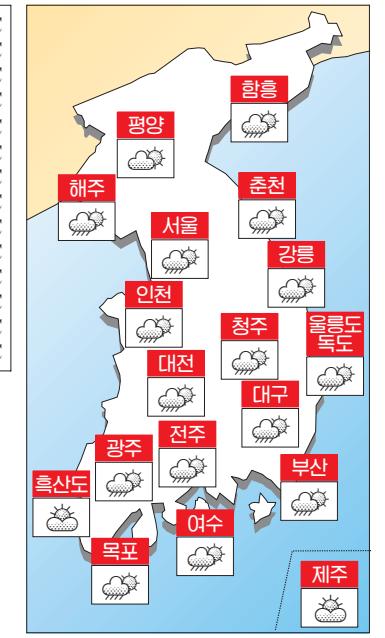
가을이 창밖에…

흐리고 한 때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9월 2일

(음 8월 3일)

◇전국날씨



기상연예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일부 업체에만 참여 자격 부여

광주시 상수도 공사 특혜 시비

광주시가 상수도 설치 공사 참여 자격을 일부 업체에만 부여해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해야 하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라 이 공사를 지정된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대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규칙은 급수 전 3천700개당 1개 회사를 기준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 현재 광주지역에는 33개 업체가 급수사업 대행업체로 지정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광주지역 100개가 넘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는 상수도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천만원 이상 공사는 전자입찰로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시·도의 경우 수주업체 부도 때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전교조, 10월 일제고사 거부 천명

학교 현장 혼란 잇따를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일제고사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30~31일 이를 동안 충북 청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제55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오는 10월과 11월 ‘일제고사 저지와 학생인권 수호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일제고사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제고사는 초6, 중3, 고1 학생들이 치르는 전국 학업성

취도 평가로 지난해까지는 3% 표집 집단만 치렀으나 올해부터 전국의 학생들로 범위가 확대됐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저지를 위해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는 방식 등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부도 세부계획을 협의한 뒤 일제고사 저지 방법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데다 체험 활동 역시 학교장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처럼 실행해 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육청 인쇄물 특정업체 몰아주기?

영광 교육청 계약 물의 … 도교육청 감사 나서

영광에서 교육장의 출신지 업체에 교육청의 인쇄물 계약 발주가 집중되는가 하면, 고교 급식자재 납품 계약에서 잡음이 불거져 전남도교육청이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교육청은 이와 관련 “계약 물량이 다소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능 원서 접수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을 찾은 수험생들이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태안 바다 생물 ‘기름 후유증’ 여전”

환경운동연합 조사 … 인체 위해성 여부는 확인 못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 일대 바다 생태계가 여전히 ‘기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가 지난 7월 중순 태안 일대에서 생

산·유통되는 바지락을 기름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바지락(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원유 장기 잔류 성분 중 하나인 하이드록시 나프탈렌(Hydroxy naphthalene) 체내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평균 3배,

최고 12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디하이드로페놀화수소(PAHs), 밤암물질인 벤조피렌(benzopyrene)의 농도는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이드록시 나프탈렌은 디하이드로페놀화수소의 대사체로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며 “이 물질의 체내 농도 수치가 높다고 해서 태안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제7기)

1. 연수일정

구 분	일 정
• 개 강 일 시	주중반 2008. 9. 5(금) 9:30
• 모 접 기 간	주말반 2008. 9. 6(토) 9:30
• 수 업 기 간	2008. 7.21(월)~2008. 8.30(토)
• 수 강 료	2008. 9. 5(금)~2009. 2.27(6개월/24주) W320,000

• 모집인원 : 1단계 주중·주말반 선착순 각 25명

• 수업시간 : (매주 금, 토) 9:30~14:50(5강좌)

• 수료후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충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특기성) 평가 후 교육(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인정 현지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 화 : (062)950-3584, 3585

■ H·P : 011-614-4160

■ 광주은행 : 148-107-307803 (예금주 :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www.kwu.ac.kr>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전 화 : (062)530-3873~5

■ H·P : 016-611-1171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3. 원서접수

• 모집인원 :